

대박의 꿈 좇다 '기름'에 빠진 개미

강통 직전 “유가급등”에 재매수... ‘거래정지’ 악순환만

레버리지 4개 종목 투기 수요 ↑
롤오버 예고에 투자자 손절매
앞으로도 거래정지 가능성 커

전액 손실 위기까지 내몰렸던 레버리지(상승장에서 수익을 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상장지수증권(ETN) 4개 종목에 다시 한 번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 거래정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하루 동안 빠르게 차익을 챙겨 나오려는 투자자들이 눈치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삼성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 QV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 신한 레버리지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원유선물혼합ETN 등 4개 종목은 지난 6일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다시 거래됐다. 모두 지난달 27일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괴리율이 30%를 넘어 황금연휴 동안 거래를 멈춘 종목들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주가 등락 추이 6일 정매감 기준

종목	주가	등락률	괴리율
삼성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	720원	-13.77	273.68
QV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	540원	8.00	269.33
신한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	440원	41.94	190.47
미래에셋 레버리지원유선물혼합ETN	2,030원	59.84	82.49



자료/한국거래소

◆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

기준에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중 급하게 손절매에 나선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달 28일에 8일 만에 롤오버(월물교체)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수 산출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기준에 예정돼 있던 5월 롤오버 기간(오는 7~13일) 현재 WTI 원유 선물 7월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8월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7월물 역시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브렌트유 선물도 7월물에서 8월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관련 ETN은 모두 월물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가 크면 더 비싼 선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시초가에 매도에 나섰던 이들 중 상당수가 성공했다. 간밤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괴리율이 낮은 종목부터 단기 투자를

노린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미래에셋 레버리지원유선물혼합ETN(H)은 전 거래일보다 760원(59.84%) 오른 2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H)(41.94%)도 강세를 보였다. QV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H)는 8.00%도 올랐다.

유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과 지표가치(IV) 차이(괴리율)이 낮은 종목부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 반복되는 악순환... 다시 거래정지
레버리지 ETN은 또다시 거래를 멈췄다. 괴리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단일가 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일 경우 3거래일간 거래를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장 마감 기준 삼성 레버리지W

TI원유선물ETN이 271.00%로 괴리율이 가장 높았다. 4개 종목 중 가장 낮은 미래에셋 레버리지원유선물혼합ETN(H)이 82.12%를 기록했다. 괴리율이 한때 1000%를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많이 축소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두 매매 거래 정지 기준점인 30%를 크게 웃돌고 있다.

ETN 상품들의 괴리율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정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유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을 철저히 단기적인 투자전략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 반등세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며 원유 ETN의 괴리율이 커졌다”며 “단기간에 괴리율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원유 선물’에 영혼털린 개미들, 관련기업 ETF ‘기웃’

코로나 진정국면에 장밋빛 전망
최근 한달 수익률 33.7% 기록

원유 생산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에 직접 연계된 상장지수상품(ETP) 투자와 비교해 손실 위험성이 작아 비교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보다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금융 빅데이터분석업체 딥서치에 따르면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의 최근 한 달 수익

률은 3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5배 이상이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7.2%, 6개월 수익률은 -39.5%로 조사됐으나 빠른 속도로 낙폭을 만회 중이다. 미국의 원유와 가스 탐사·생산기업에 투자하는 ‘S&P 오일 앤 가스 익스플러레이션 & 프러덕션 시렉트 인더스트리 인덱스(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Select Industry Index)’(SPSIO P) 지수를 추종한다.

같은 기간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도 최근 한 달 동안 8.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원 생산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에 분산투자 하는 이 상품은 산업용 금속과 에너지 섹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상품은 통상 유가가 오르면 함께 오르는 성격을 지닌다. 글로벌 정유기업 등 유가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지수화한 후 이 지수에 연계했기 때문이다.

수익률과 직결된 국제유가는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장밋빛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이동제한 등 관련 조치가 완화되면 자연스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서다. 원유 수요 감소와 저장 시설 문제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23.99달러에 거

래를 마쳤다. 마이너스(-)까지 폭락하며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원유 선물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ETN의 수익은 장담할 수 없다. 월물 변경에 불어나는 비용부담 때문이다. 선물 거래 특성상 만기가 도래하는 선물(근월물)을 만기가 먼 선물(원월물)로 교체하는 롤오버를 해야 하는데, 반복된 유가 폭락으로 상품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롤오버가 잦았다. S&P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6월물을 7월물로 특별변경한 후 9일 만인 7일

부터 13일까지 5영업일 간 8월물로 다시 롤오버 한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N의 경우 더 더욱 기초 지수 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다. 일간 수익률의 일정 배수를 추종하는 복리효과 때문이다. 여전히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등락이 발생하거나 하락추세로 방향이 틀어지면 손실은 커진다. 실제로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WTI는 6일 2.3%(0.57달러)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원유 선물 ETN은 헤지거래나 단기투자에 활용해야 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태화 기자

180석 범여권 이끌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태년 의원

163표 중 82표, 과반 이상 획득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김태년(4선, 경기 성남수정) 의원이 당선됐다. 김 의원은 7일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총 163표 중 과반 이상인 82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전해철 의원은 72표, 정성호 의원은 9표를 각각 얻어 낙선했다.

이번에 선출된 김 신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180석 규모의 거대 범여권 사령탑으로서 원내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그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

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서 소통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 모든 힘을 쏟아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친 전해철·정성호 후보께 선거 기간 동안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우리당의 발전을 위해 두 분의 귀한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21대 국회 첫 1년은 무조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일의 선후와 경중, 완급을 잘 가려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선공후사하는 마음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생각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경제 전 영역에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추진”

» 1면 ‘고용보험 사각...’서 계속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 유치 효과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선제 대응이 긴급하다고 판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트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산업 분야

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테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중기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부터 시작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예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와 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 활동을 점차 늘려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